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수용 양상 연구

- 설화 및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사동휘(제1저자)* · 정소연(교신저자)**

국문초록

본고는 그간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만 편중된 연구사에 주목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고전문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달리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대상이 제한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중국은 중세문학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의 고전문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염두하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장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4종을 대상으로 한국 고전문학의 수용 양상을 개관하였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에는 고급 단계가 많지 않지만, 고급 교재가 있더라도 한국 고전문학은 중급 단계에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설화나 설화 관련 작품이 가장 많이 실린 점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Ⅲ장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 고전문학 못지않게 중국의 설화를 나란히 두거나, 때로는 중국의 설화를 주된 본문 텍스트로 삼기까지 하는 등 한국어 교재라고 해도 실제 교수자나 학습자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문학을 한국어로 바꾸거나 표현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제기한 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중세문학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깊었던 만큼 고전문학을 현대문학보다 더 쉽게 여기고 중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의 고전문학이 본문에 제시만 될 뿐이고 연습문제의 내용으로까지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비한다면 중국의 고전문학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진다는 점,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중국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 한국 고전문학의 수용, 중국의 세계화, 25개대 한국어, 북경대 한국어, 우림길 한국어, 연변대 한국어, 설화, 민담, 흥부와 놀부, 단군신화, 효녀 심청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 srilannahui@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chong33@ewha.ac.kr

— | 목 차 | —

I. 서 론

III. 설화 및 설화 기반 고전문학의 수용 양상

II.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수록 개관

IV. 결 론

I. 서 론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본고는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 수요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교류는 증가해왔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련 연구성과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 양상에 접근할 때에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것이 한국어 교재인데, 대부분은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중국인 학생은 이미 중국에서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게다가 2020년 기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과는 280여 곳에 이른다.¹⁾ 본고는 이들 대학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 고전문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목적 학습자가 중국인으로 한정되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 고전문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는 있지만 한국 출판 한국어 교재는 중국인만을 예상 학습자로 한 것은 아니다.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는 중국인만을 위해 만든 것이므로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 고전문학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문이라는 공동문어를 동아시아가 함께 사용했던 중세에 그 중심국이었던 중국이 현재에는 한국 고전문학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고전문학의 시대, 곧 근대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이 매우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문학과 문화의 교류와 영향이 매우 많았다. 또 중국은 동아시아 중세문학의 중심이기도 하여²⁾ 문화적 자부심이 높다. 특히 한문이라는 문자 매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고전문학을 현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의 커리큘럼과 문학 교재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는 한국어 교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고전문학의 깊이 있는 작품 연구는 고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부 전공자만 접한다. 반면에 한국어 교재는 좀 더 대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고전문학의 양상은 중국에서 한국 고전문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있

1) 姜宝有, 「中国朝鲜(韩国)语教育的现状与课题」, 『东疆学刊』 1, 2022, 89쪽.

2) 조동일,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1999.

는지에 대한 더 보편적인 시각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

셋째, 언어 교육은 해당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기도 한데, 문화를 이루는 핵심에는 오랫동안 장기 지속된 정신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고전문학이 차지하고 작용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일례로 연세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를 중국에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정』³⁾을 보면 전체 1~6권 중 4~6권의 매 과마다 ‘문화 해설’ 부분에서 대부분 설화, 고사 등 고전문학과 긴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고전문학이 한국 문화의 기초를 이룬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는 개인적 창작물이 아니라서 한국인 전체의 가치관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흥미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 바 있다.⁴⁾ 그렇다면 외국인인 중국인은 근대 이전에 오랫동안 한국과 관계를 맺어온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까지 한데,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고전문학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사에서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된 것이 문학교육의 부족이나 고전문학 교육의 부재이다.⁵⁾ 전술한 바, 그 중요성과 연구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의 고전문학 부분은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다. 赵振坤(2012)에서는 중국 내 대부분의 한국어과 교수자들이 한국 문학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 李龙海·方今淑(1998), 苑宪琨(2017), 张乃禹(2019)에서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⁷⁾ 참고로 한국 출판 한국어 교재에서는 고전문학이 개괄적인 내용 이해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⁸⁾ 고전문학에 비해 현대문학이 훨씬 더 많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에서⁹⁾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고전문학은 어느 정도로 수용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대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 고전문학의 위상과 인식 정도를 살피고자 한다. 중국 대학에서 보는 한국어 교재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과, 한국 교재의 중국어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는 전자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실제로 중국 대학에서의 사용 비율이 중국 자체 개발 교재는 57%, 한국 교재의 중국어판은 43%라는 점에서 조금 더 사용자가

3)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 『韩国语教程』 4~6,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07.

4) 田美燕, 「浅析韩语教学中的文学作品教学—以民间故事教学为主」,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7, 2013, 46~47쪽; 苏丹·张方明, 「韩国神话对韩语教育的运用研究」, 『产业与科技论坛』 12, 2019, 219~220쪽.

5) 赵振坤, 「国内高校韩国文学课程教学改革探讨」, 『黑龙江教育(高教研究与评估)』 2, 2012, 34쪽; 孙淑兰, 「韩语教学中渗透文化教育的探究」, 『教育现代化』 4: 32, 2017, 284~285쪽; 郑慧·黄进财, 「韩国语词汇教学中的语言文化教育」, 『东疆学刊』 2, 2021, 121쪽; 김병운,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9, 18쪽; 朴春燕, 「韩语专业学生对韩国文化认识与学习需求分析」, 『沈阳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2010, 135쪽.

6) 赵振坤, 앞의 글, 2012, 34쪽.

7) 李龙海·方今淑, 「中韩文化差异与韩国语教学」, 『延边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1998, 136쪽; 苑宪琨, 「韩国语教学中存在的文化差异分析」, 『文学教育』 4, 2017, 54쪽; 张乃禹, 「论新时代高校韩国语专业教学中的文化导入」, 『常州信息职业技术学院学报』 18: 2, 2019, 34쪽.

8) 이숙진,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강남대 석사논문, 2008, 53~72쪽; 장원기,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10.

9) 강충화,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조선대 박사논문, 2014, 63쪽.

많다.¹⁰⁾

게다가 전술한 것처럼 중국에서 만들어 출판한 한국어 교재는 대상 학습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전공자들의 학습 동기는 대부분이 한국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다.¹¹⁾ 반면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로 공부하는 이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은 취업만이 아니라 취미나 한국에 대한 관심 등으로 더 다양하다.¹²⁾ 이렇게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보다는 한국 관련 직종을 얻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보는 교재는 과연 한국고전문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는 고전문학에 초점을 두기보다 전반적인 경향이나 문법, 어휘 등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于慧踊(2009)¹³⁾에서는 중국어를 의식하여 중국어 기반의 한국어 학습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담결(2010)¹⁴⁾에서는 대상 학습자와 교사의 유의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법 설명이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유쌍옥(2016)¹⁵⁾에서는 출판된 지 오래되거나, 개정판이 출판되어도 내용이나 구성의 변화가 많지 않으며, 고급 수준의 교재는 잘 개발되지 않고 중급까지가 대부분임을 지적하였다. 李海英(2021)¹⁶⁾에서는 8종의 고급 수준의 교재의 텍스트 양상을 분석하면서 2010년 이전의 교재는 소설이 위주였는데 2014년 이후에는 수필이나 기타 장르가 더 우세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선행연구의 성과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초점이 한국의 것보다 중국의 것을 한국어로 잘 전하는 것에 더 방점이 놓여있다는 점이다. 高程程(2016)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나온 한국어 교재를 문화면에서 비교하였는데, 한국 출판 교재에 비해 중국 출판 교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국 문화를 다루는 비중은 상당함을 지적하였다.¹⁷⁾ 于美灵(2022)에서는 중국의 『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 초급에서 속담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고전임을 지적하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전공자들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전파하는 책임과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이는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한국의 이해에 못지않게 중국의 문화를 한국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수용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인 박지순·김유미(2022)를 보면 한국고전산문의 경우 27개 작품이

10) 유쌍옥,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과 개발 방향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한중인문학회, 2016, 204쪽.

11) 王泽颖 외, 「国内韩语人才就业前景分析」, 『韩国语教学与研究』 1, 2018, 106~107쪽.

12) 강승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 2003. 260쪽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379명 중에서 35%의 학습자들이 취미 등의 다양한 이유를 학습 동기로 들었다.

13) 于慧踊, 「国内韩国语教材现状分析」, 『科教文汇下旬刊』 33, 2009, 23쪽.

14) 담결,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0, 40쪽.

15) 유쌍옥, 앞의 글, 2016.

16) 李海英, 「韩国语高级教材分析研究—以文本为例」, 『中国朝鲜语文』 5, 2021, 49쪽.

17) 高程程, 「韩中韩国语教材文化内容比较研究」, 延边대 석사논문, 2016, 33~35쪽.

18) 于美灵, 「韩国语教材中的课程思政元素探究—以《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1、2为例」, 『东北亚外语研究』 3, 2022, 38~49쪽.

실렸는데,¹⁹⁾ 高程程(2016)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중국 출판 교재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세 한국어』에서도 그러하였지만, 그간 연구자들은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은 한국의 고유성과 민족성,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해왔다.²⁰⁾ 이렇게 한국 관련 직업에의 선호도가 높고, 중국인이라는 대상 학습자도 명확하며, 또한 중세 문학사에서 한국에 문화적으로도 영향과 교류가 많으면서도 중국문학과 문화의 전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고전문학을 과연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II.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수록 개관

본고에서는 선행연구²¹⁾와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들의 자문을 반영하여²²⁾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다음의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의 순서는 출판 연도 순이고, 교재에 따라 고급까지 출판된 경우도 있고, 중급까지만 출판된 경우도 있다. 이하 교재의 명칭은 아래 표에서 보이는 편의상 명칭으로 지칭한다.

① [25개대 한국어]는 1992년 중·한 수교 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한국어 교재이다. 북경대학교, 복단대학교, 연변대학교 등 중국의 25개 대학교가 공동 편찬했다. 1996년에 제1권이 발간된 이후 중국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학습자의 수요와 상황에 맞추어 수차례의 판을 거듭하면서 2018년 제7권이 나왔다. 가장 일찍부터 가장 최근까지 널리 사용되는 교재라 할 수 있는데, 서문을 통해 초급에서 중급까지인 1~3까지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나온 교재인 ② [북경대 한국어]는 중국 북경대학교의 조선 문화 연구소에서 편찬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감수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1~4권까지 점차 출판되었고, 2008년과 2010년에 제1~2권의 수정본이 각각 출판되었다. 교재의 수준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선행연구의 의견이 분분하다. 왕지원(2011)²³⁾에서는 [북경대 한국어] 제3권과 제4권을 고급 교재로, 임칠성(2016)²⁴⁾에

19) 박지순·김유미,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활용 양상 분석 - 교재에 게재화된 고전 산문을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18: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2, 109~111쪽.

20) 김중철,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언어교육원 공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아가넷, 2012, 537쪽; 송향근·권혜경·김령·김양순·김유선 외 11명, 『(2판)예비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론』, 하우, 2019, 300~301쪽; 양민정,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 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307~331쪽; 김정우, 「중국의 한국어 고급 교재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166쪽; 조현우,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고전문학 활용 방안 -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점점' 찾기」, 한국고전연구학회, 『고전 문학과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태학사, 2017, 88쪽.

21) 담결, 앞의 글, 2010; 유쌍옥, 앞의 글, 2016.

22) 현재 한국에 학문 목적으로 유학을 온 대학원생이면서 중국에서부터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8명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23) 왕지원, 「한국어교재의 옛이야기 비교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11.

〈표 1〉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상위 4종 목록

연번	교재명 [편의상 명칭]	교재등급	저자	편찬기관	출판사	출판연도
①	『표준한국어』(1~3) [25개대 한국어]	초~중	安炳浩 외	북경대학교 외 25개 대학교 공동	북경대학교 출판사	1996~2018 (제7판)
②	『한국어』(1~4) [북경대 한국어]	초~중	李先汉 외	북경대학교 조선문화 연구소	민족 출판사	2000~2010 (수정본)
③	『대학 한국어』(1~6) [우림걸 한국어]	초~고	牛林杰 외	牛林杰, (韩)崔博光	북경대학교 출판사	2005~ 2014 (제3판)
④	『기초한국어』(1~4) 『고급한국어』(1~2) [연변대 한국어]	초~고	金永寿南日 张英美沈贤淑 马今善 외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학원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2007~2014 (제3판)

서는 제4권을 고급 교재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진정·서혁(2018)²⁵⁾에서와 ZHANG YINAN(2023)²⁶⁾에서 제3권이나 제4권까지 중급 교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와 더불어 시선을 넓혀 실제 대학에서의 학습 학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경대 한국어] 제3권은 2학년 1학기에, 제4권은 2학년 2학기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③ [우림걸 한국어]에서도 같다. 즉, ③ [우림걸 한국어] 제3~4권도 각각 2학년 1학과 2학기의 교재로 사용되는데 중급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 중국인 대학생의 자문에서도 [북경대 한국어] 제3~4권은 2학년 때의 교재로 보고 있고, 3학년부터를 고급 단계로 인식하면서 다른 고급 교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북경대 한국어] 제 1~2권은 초급, 제3~4권을 중급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③ [우림걸 한국어]는 편집장은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원 원장 우림걸(牛林杰)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여러 대학 집필진이 함께 참여하였다. [25개대 표준한국어]만큼 많은 대학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산둥대학교, 북경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와 한국의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집필진이 공동집필하였다. 제1~4권은 2005년부터 2007년에 제1판이 출판되었고, 제2판은 2009년에, 제3판은 2014년에 나왔다. 제5~6권은 2009년부터 2010년에 출판되었다. 표지를 보면 ‘중국대학 출판사 도서상 우수 교재’ 1등상과 ‘산동성 고등교육 교학성과 상’ 2등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제1~2권은 초급, 제3~4권은 중급, 제5~6권은 고급 단계이다.

④ [연변대 한국어]는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출판하였다. 4종의 한국어 교재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학교의 감수나 공동 집필자가 없는 연변대학교만의 자체 제작 교재이다. 지역 특성상 조선족의 생활권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학자들보다 한국문학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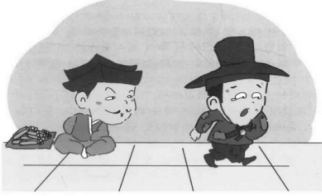
24) 임철성, 「한국·중국·미국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비교 연구: 『연세한국어 6』, 『韩国语 4』, 『Integrated Korean - Advanced Intermediate 1』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1: 3, 2016, 185~219쪽.

25) 진정·서혁, 「중국인 학습자 대상 중급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 난도에 대한 한국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연구」, 『독서연구』 46, 2018, 213~236쪽.

26) ZHANG YINAN, 「중국 현지 출판 한국어 중급 교재 대화문의 실제성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23.

수 있다. 실제로 4종의 한국어 교재 중 가장 많은 한국고전문학의 작품과 장르를 다루고 있다. 기초 제1~4권은 2007년부터 2014년에 걸쳐 제3판이 나왔다. 고급 제1~2권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나와 지금까지 수정이 되지 않고 출판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관한 4종의 교재의 본문 구성 체제를 보면 ③ [우림걸 한국어만 단원이 시작될 때에 ‘重点语法’를 목표로 제시하고 본문이 나온다. 나머지 3종의 교재는 목표와 같은 안내 없이 바로 단원명 다음에 본문이 등장한다. 이 둘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문 뒤에 ‘单词’나 ‘生词’(또는 ‘새단어’), 어법 설명, 어법에 따른 ‘练习’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4종이 모두 같다. 또 이 4종의 교재에서 중급까지는 어법 설명에는 중국어로만 되어 있거나 중국어가 한국어와 병기되어 있고, 연습문제도 중국어로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고급교재만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목표+본문 : [우림걸 한국어] 2, 제16과	본문 바로 시작 : 나머지 3종 (아래 사진은 [25개대 한국어] 3, 제19과)
제16과 흥부전 第十六课 兴夫传  重点语法 1. 관형사(冠形词) 2. V-고자 3. N-이/가 아니라 4. V-고 말다- 5. -잖아(말미사) 课文 옛날,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마을에 작은 동생 흥부를 내쫓았습니다. 빈손으로 내쫓긴 흥부는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네 집에 재비가 죽어 날아와 동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얼마 재비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가 새끼재비를 잡아 먹으려 하였습니다. 새끼재비는 동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흥부는 구렁이를 쫓고 새끼재비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듬해, 그 재비가 돌아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박씨 하나를 주었 흥부와 놀부  제16과 흥부전 163	第19课 兴夫与游夫 흥부와 놀부  (1)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다. 동생 흥부는 마을씨가 굵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형 놀부는 마을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형제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는데, 놀부는 흥부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마을씨 착한 흥부는 빈손으로 쫓겨나면서도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  (2) 계속된 가뭄으로 흥년이 들어 살기가 너무 어려웠다. 겨울이 되자 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흥부네 가족은 거의 굶다시피 하였다. 자식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한 흥부는 자식들을 이끌고 형의 집을 찾아가 형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놀부와 놀부 마누라는 화를 내며 흥부를 쫓아냈다. (3) 고생스럽던 겨울도 끝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다. 부지런한 흥부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흥부네 집에는 재비 한 쌍이 날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재비들은 여기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길렀다. 어느 날 일을 하러 밭에 나가던 흥부는 재비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재비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 161

<그림 1> 중국 출판 한국어교재 4종의 목표 제시 여부

이렇게 본문 텍스트가 바로 나올 만큼 주된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교재를 개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표 2>는 이 4종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고전문학 작품의 수록 현황이다. 대체로 단원명이 본제재의 작품명이고, 더불어 보조 제재도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작품 수록 현황

연 번	교재명		교재 등급	수록 단원	단원명 (본제재 작품명)	장르	보조 제재 작품명	장르
①	25개대 한국어	1	초급	24개 과	-	-	24개(/30개 과 중) 과의 마지막마다 속담 1개씩 제시	속담
		2		20개 과	-	-	20개 과에서 매 과의 마지막마다 속담 1개씩 제시	속담
		3	중급	20개 과	-	-	20개 과에서 매 과의 마지막마다 속담 1개씩 제시	속담
				제15과	신사임당	전기		
				제19과	홍부와 놀부	민담		
②	북경대 한국어	2	초급	제11과	직업 (가재는 게편이다) ²⁷⁾	-	-	-
		3		제2과	영화 이야기 (펑 대신 닭)	-	-	-
				제6과	단군 이야기	신화	-	-
				제13과	속담의 지혜 (12개 속담)	속담	-	-
		4	중급	제3과	예절과 체면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	-	-
				제9과	두레와 품앗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	-
				제11과	한글에 대하여 (훈민정음의 해례본)	서문	-	-
				제14과	심청가	판소리	-	-
		③	우림걸 한국어	2	초급	제7과	세종대왕과 한글	전기
제15과	인터넷 검색 (식은 죽 먹기)					-	-	-
제16과	홍부전					민담	-	-
3	중급			제10과	결혼식 (등잔 밑이 어둡다)	-	-	-
				제11과	축하와 위로 (속담 3개)	-	-	-
				제16과	옛이야기[1] ²⁸⁾ (1) 콩쥐팥쥐, 토끼전 (2) 효녀 심청	민담 (3편)	두 형제	민담

연 번	교재명		교재 등급	수록 단원	단원명 (본제재 작품명)	장르	보조 제재 작품명	장르
		4		제17과	직업 (걱정도 팔자)	-	-	-
				제18과	영화 감상 (춘향전 이야기)	민담	-	-
				제2과	약속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	-
				제5과	세대 차이 (호랑이 담배 먹을 적)	-	-	-
				제13과	단군신화	신화	백제의 이야기	신화
				제14과	생활과 속담 (속담 13개)	속담	-	-
				제15과	옛이야기[2]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민담	아리랑	민요
		5	고급	12개 과	-	-	매 과마다 보충지식 부분에 속담 3~5개씩 제시	속담
④	연변대 한국어 기초	2	초급	제14과	입에서 살살 녹아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	국수는 언제 먹어 (4개 속담)	-
				제15과	홍부와 놀부	민담	농부와 아들들	민담
		3	중급	제6과	효녀 심청	민담	-	-
				제8과	한국의 속담 (속담 16개)	속담	함흥차사	고사 성어
				제9과	장백산 미인송에 얽힌 이야기	전설	단군신화	신화
		제11과		한석봉과 어머니	전기	-	-	
	연변대 한국어 고급	2	고급	제3과	아리랑	민요	-	-
				제5과	양반전	고전 소설	-	-

위 <표 2>는 <표 1>과 같이 출판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 <표 2>를 통해 몇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첫째, 고전문학의 작품 수록 정도를 보면 출판 시작연도가 이룰수록 작품 수록 정도가 적고 가장 나중에

27) 이하 속담이 1개씩 괄호 속에 제시되는 것은 본문 제재는 아니지만 본문의 대화 중에 언급되는 것이다.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장르 표기는 하지 않는다.

28) <공취팔귀>와 프랑스의 <신데렐라>의 유사성, <토끼전>과 일본의 <우라시마타로>의 유사성이 언급된다. 이외에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은 제목만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다.

출판되기 시작한 교재에서 작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다룬다. 즉, 가장 먼저 출판된 ① [25개대 한국어]에서는 단원마다의 말미에 속담이 보이기는 하지만,²⁹⁾ 본격적인 본문 제재로는 〈홍부와 놀부〉 1개의 작품만 수록되었다. 반대로 가장 늦게 출판이 시작된 ④ [연변대 한국어]에는 본문 작품이 7개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장르 종류도 민담, 속담, 전설, 전기, 민요, 고전소설로 가장 많다. 이는 가장 늦게 출판이 이루어져서 선행 교재보다 더 보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이 많고, 그만큼 한국문학에 대한 친숙함이 많은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④ [연변대 한국어]의 〈장백산 미인송에 얹힌 이야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설화이다. 장백산은 백두산의 중국식 이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길림성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역성을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고전문학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이 설화만큼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엄밀히 말해서 중국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족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듯하면서도 결국 중국식의 설화를 한국어로 전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중국의 세계화³⁰⁾와도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일한 교재 내에서의 현대문학 수록 정도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에서 현대소설보다는 수필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실리는데,³¹⁾ 수필의 경우 한국 수필만이 아니라 중국, 프랑스 수필까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 ③ [우림길 한국어]와 ④ [연변대 한국어]의 고급 교재에는 일본 소설 〈우동 한 그릇〉이 실려 있기까지 한다. 그리고 원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수필은 연구자에 따라 한국 작품이나 중국 작품으로도 읽고 있다.³²⁾ 이렇게 한국 출판 한국어 교재와 달리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에 다양한 나라의 수필을 실는 모습 자체가 중국의 세계화를 위한 일환으로 한국어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장르의 수록 양상을 보면 하나의 교재 내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장르를 수록하려고 하면서도 4종 전

29) 제4판부터 속담이 단원 말미에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30) 중국의 세계화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어느 나라나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염두한 것임을 밝혀 둔다.

31)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 4종의 현대문학 수록 현황(본문 제재만)

	① [25개대 한국어]	② [북경대 한국어]	③ [우림길 한국어]	④ [연변대 한국어]	총합
초급	0	0	0	0	0
중급	0	현대시 2개 현대수필 2개 현대소설 1개	현대수필 2개	현대수필 8개	현대소설 1개 현대시 2개 현대수필 12개 (총 15개)
고급	0	0	현대수필 6개 현대소설 8개	현대수필 14개 현대소설 4개	현대소설 12개 현대수필 20개 (총 32개)

32) 일례로 ④ [연변대 한국어]의 고급 교재에 실린 〈소주 정원〉에 대하여 김정우, 앞의 글, 2012, 164쪽에서는 한국수필로, 李海英, 앞의 글, 2021, 44쪽에서는 중국수필로 다르게 보고 있다.

체를 보았을 때에는 특정 장르에 치우쳐져 있다. 가급적 한 권의 교재 내에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장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가급적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② [북경대 한국어]가 대표적이다. 작품수는 4개라서 교재 ③, ④에 비하면 적지만 장르는 5개이다. 다른 교재에 없는 판소리가 실렸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서문도 실려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고전문학의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심청가>의 경우는 심청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다루면서도 4종의 교재 중에서 유일하게 판소리의 대목도 본문으로 실려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상론할 것이다. ③ [우림길 한국어]도 본제재에서 신화, 민담, 속담 장르를 다루면서, 보조제재에서는 민요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고전문학의 장르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정 장르쪽으로 치우쳐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피기 위해 우선 4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고전문학 장르의 분포를 보기 위해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는 보조 제재는 제외하고 본문 제재만 정리한 것이다.

<표 4>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문학 본문 제재의 갈래 및 난이도 현황

	설화			전기	속담 ³³⁾	판소리	서문	고전소설	민요	총합
	민담	신화	전설 ³⁴⁾							
초급	2	0	0	1	0	0	0	0	0	3
중급	7	2	1	2	3	1	1	0	0	17
고급	0	0	0	0	0	0	0	1	1	2
총합	9	2	1	3	3	1	1	1	1	22

위의 <표 4>를 보면 시가와 산문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고전시가는 민요 <아리랑> 외에는 보이지 않고 산문에만 기울어져 있다. 가장 많이 실린 장르는 민담으로, 신화까지 포함하면 설화가 압도적이다.³⁵⁾ 민담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인의 다수를 이루는 민중들이 향유해온 것이라서 중국과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고유한 장르라 할 수 있다. 또 본문 제재로 2회 수록된 신화는 모두 <단군신화>로서 한국의 기원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향과 무관하다. 곧, 이와 같은 장르의 치우침은 중세문학사에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많았던 장르를 제외하고, 가장 한국적인 고유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그래서 가장 오랜 시

33)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속담 자체를 본문의 중요한 제재로 삼는 단원의 수이다. 다른 갈래나 텍스트가 대부분 1개의 단원에서 1개의 작품이 본문 제재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통계를 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는 속담 개수를 모두 더한다면 훨씬 많아지는데, 이는 <표 2>에서 자세히 밝혀두었다.

34) 전술한 것처럼, 전설로 실린 <장백산 미인송에 관한 이야기>는 위상이 애매할 수 있지만 설화의 성격상 오랜 역사성을 띠고 전승이 되므로 영토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설화로도 볼 여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여기에 기입하였다.

35) 이 <표 4>에서 고전소설은 박지원의 <양반전>만 제시하였다. ③[우림길 한국어]는 초급에서 <흥부전>을 실고 있으나 제목만 소설로서의 명칭을 표방하고, 실제 내용이나 분량면에서는 판소리계소설로서의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민담으로 분류하였다. 이 점은 <심청전(효녀 심청)>, <춘향전>, <토끼전> 등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문의 문체나 교재에서의 수용 맥락이 민담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따로 고전소설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간동안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향유해온 설화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작품이 정전으로서의 대표성을 띠는지도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난이도를 고려한 위계화 설정은 적절한 편이지만 중급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표 2>를 보면 특정 단계별로 연속되어 고전문학을 학습하게 하고 있다. ① [25개대 한국어]나 ③ [우림길 한국어]와 같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연속되거나 ④ [연변대 한국어]와 같이 초급에서 중급을 거쳐 고급까지 연속적으로 고전문학을 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① [25개대 한국어]의 초급에서는 본체재로 실리지는 않았지만, 초급 첫 권에서부터 중급인 제3권까지 일부 몇 개의 단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원 말미에 속담을 1개씩 배우도록 배치하였다. 속담은 고전문학 중에서 텍스트가 가장 짧다. 1개의 문장일 뿐만 아니라 문장 길어도 ‘칼로 물 베기’와 같이 매우 짧은 편이다. 물론 짧다고 모두 쉬운 것도 아니고, 속담 내에서도 다양한 난이도가 있지만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분량면에서도 학습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³⁶⁾ 이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우림길 한국어]도 초급과 중급에서는 민담을 공부하다가 중급에서는 민담과 더불어 신화, 속담으로 장르를 추가해가는 방식을 취해 위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중급의 제15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를 다룬 것이다. 이 작품은 유명하거나 정전(正典)이 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한국 민담이 가진 지혜와 기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담의 특징이 잘 집약된 이야기를 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 교재가 있으면서도 고급 단계에서는 고전문학은 전혀 나오지 않고, 현대문학만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근대 이전과 달리 한문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중심으로 문학사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낯설고 거리가 멀다고 여겨 고급 단계에 배치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교재는 ④ [연변대 한국어]이다.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든 단계마다 고전문학을 학습할 수 있게 한 유일한 교재이다. 초급, 중급, 고급의 모든 단계에서 고전문학을 적절히 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는 점도 위계화와 관련해서 주목된다. 초급에서는 속담이나 민담을 공부하고, 중급에서는 새로운 장르로 전기(傳記)를 공부하고, 고급에서는 또 새로운 장르인 민요와 고전소설을 공부한다. 단계별로 여러 장르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를 여러모로 익히게 하고 있다. 특히 가장 고급 단계에서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을 둔 점은 고전문학사의 흐름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연습문제도 본문의 작품과 긴밀하게 이해하면서 해당 작품이나 갈래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산문에 비해 시가(詩歌)가 외국인에게는 그 함축성으로 인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표 2>를 보아도 시가는 산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물론 <아리랑>을 수록한 해당 본문은 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의 노랫말을 일일이 소개하는 시학적 설명과 더불어 유래나 역사, 이 노래에 담긴 정서 등 민요 일반의 소개도 함께 하고 있다.

36) <표 3>과 같이 현대문학 작품은 중급에서 15개, 고급에서 32개씩, 총 47개의 작품을 싣고 있는데, <표 4>를 보면 고전문학은 4종 모두를 합해도 본체재가 20개이니 현대문학 작품이 고전문학보다 2배가 훨씬 넘는다. 이 역시 고전문학은 중국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여겨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인식이 현대문학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37) 진정·서혁, 앞의 글, 2018에 의하면 문장의 길이는 어휘 난이도, 주제의 친숙도, 문장 구조, 문체와 함께 텍스트의 난이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유일하게 고전소설 〈양반전〉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총 7개의 연습문제 중에서 마지막 7번의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춘추전국시기의 ‘모순(矛盾)’의 고사와 송나라 주희의 ‘숙맥(菽麥)’의 고사를 읽기 자료로 제시하면서 내용 이해를 한국어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중국의 어문 교과서를 한국어로 번역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한국어는 외형에 불과한 대목이다. 본문인 〈양반전〉과도 무관하여 해당 문제의 위상이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전체를 조망했을 때, 앞에서 본 〈표 4〉의 우측 총합을 보면 고전문학이 중급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급 교재가 있는 ③ [우림걸 한국어에서 고전문학을 아예 다루고 있지 않거나, 고급 교재가 있는 ④ [연변대 한국어]에서도 중급보다는 적게 다루고 있다. 한국 고전문학의 난이도는 초급보다는 중급이 적절하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에서는 한국 고전문학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출판되는 한국어교재는 고급 단계까지 모두 출간되는데, 고전산문의 경우 초급에 14.1%, 중급에 47.9%, 고급에 38%가 수록된다.³⁸⁾ 역시 중급이 가장 많지만 이에 못지 않게 고급단계에도 상당히 다루고 있다. 또 앞의 〈표 3〉을 보면 현대문학은 고급 단계로 갈수록 수록 작품이 더 많아서 고전문학의 경우와는 대비적이다. 현대 한국어 학습을 위해 현대문학을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의 교류가 오랫동안 많았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고전문학은 훨씬 더 친숙한 반면에 현대문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장에서 다루면서 더 고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학습적 목표와 맥락 속에서 해당 작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설화와 관련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Ⅲ장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4종에서 설화와 관련된 작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설화 및 설화 기반 고전문학의 수용 양상

여기서는 가장 많이 실린 민담을 비롯해서 신화, 민담과 긴밀한 고전소설과 판소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근원설화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에 기반하여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로 창작되어 문학사적으로도 긴밀하고, 교재에서도 민담과 고전소설, 판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그 차이에 대한 고려는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설화와 설화 기반 장르의 작품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상론하고자 한다.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38) 박지순·김유미, 앞의 글, 2022, 112쪽.

〈표 5〉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 4종의 설화 및 설화 기반 작품의 수록 양상

	수록 제재 (수록 횟수)	교재명	수록등급	수록형식
1	홍부와 놀부 (본문 3회+제목 언급 1회)	[우림걸 한국어]	초급	전문 요약 (17개 문장)
		[연변대 한국어]		전문 요약 (22개 문장)
		[25개대 한국어]		전문 원문 (80개 문장)
		[우림걸 한국어]		대화(23개 문장)에서 '홍부전' 제목 언급
2	단군신화 (본문 2회+보조 1회)	[북경대 한국어]	중급	대화+원문 부분 발췌 (10개 문장)
		[우림걸 한국어]		대화+전문 요약 (28개 문장)
		[연변대 한국어]		전문 요약 (19개 문장)
3	효녀 심청 (본문 2회+제목 언급 1회)	[북경대 한국어]		'심청가' 앞부분 요약 (20개 문장) +눈뜨는 장면 원문 발췌 (19개 문장)
				전문 요약 (28개 문장)
4	춘향전 (본문 1회+제목 언급 1회)	[우림걸 한국어]		대화(23개 문장)에서 '심청전' 제목 언급
				대화(9개 문장)+영화 감상문
5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본문 1회)			대화(23개 문장)에서 '춘향전' 제목 언급
				전문 요약 (37개 문장)

위 5편의 작품은 본문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것이다. 위 작품들 외에도 ④ [연변대 한국어]의 〈장백산 미인송에 얹힌 이야기〉라는 민담도 있으나 이는 Ⅱ 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중국 설화라서 위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위 〈표 5〉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은 〈홍부와 놀부〉 또는 〈홍부전〉이다. ③ [우림걸 한국어]에서는 〈홍부전〉이라는 명칭으로 대화 중에 언급되었으나 나머지 교재에서는 모두 〈홍부와 놀부〉로 지칭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판소리계소설로서의 고전소설과 설화의 장르 차이를 인식하거나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효녀 심청〉도 ③ [우림걸 한국어]에서 〈심청전〉이라는 제목이 대화 중에 언급만 되는데, 이 역시 설화와 고전소설의 구분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홍부와 놀부〉, 〈효녀 심청〉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부전〉이나 〈심청전〉이 주된 제목이 아닌 것을 보면 판소리계소설로서보다는 설화로서 이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중국어로의 번역이 일부 병기(併記)되는데, 홍부는 모두 '兪夫'로 번역한 반면 놀부는 교재마다 '遊夫'([25개대 한국어]), '孺夫'([연변대 한국어]), '諾夫'([우림걸 한국어])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설화가 가장 많이 실렸고, 최다 수록 순위 위 표와 같이 1위~5위를 꼽아보면 〈홍부와 놀부〉, 〈춘향전〉, 〈단군신화〉, 〈효녀 심청〉, 〈선녀와 나무꾼〉의 순서이다.³⁹⁾ 5위의

작품을 제외하면 약간의 순서가 다르긴 해도 공통적으로 1위~4위의 4개 작품은 동일하다. 이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가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의 최다빈도 작품을 유사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교재에서 5위 〈선녀와 나무꾼〉 이하 작품인 〈소가 된 게으름뱅이〉, 〈콩쥐팍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제재와 소재로서의 위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4회씩 수록된 점이 동일하다.⁴⁰⁾ 이를 보면 5위 이하의 작품은 비슷한 수록 빈도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의 교재에서도 4개 작품 외의 5위 작품은 한국의 교재에서도 실려 있지 않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와 같이 독특한 작품을 선정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작품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25개대 한국어에서 80개라는 가장 긴 문장으로 실린 〈홍부와 놀부〉이다. [25개대 한국어의 다른 본문들이 평균 20~40여 개 미만의 문장임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으로 길다. 위 〈표 5〉 전체를 통틀어도 4종의 교재 중에서 가장 텍스트의 길이가 길다. 또한 보통 본문은 (1) 대화, (2)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⁴¹⁾ 〈홍부와 놀부〉는 Ⅱ장의 〈사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대화는 없고, (1)~(9)까지 9개 단락으로 〈홍부와 놀부〉 텍스트 전체를 싣고 있다.

유난히 본문 텍스트가 길고 자세한 편이라서 연습문제도 〈홍부와 놀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법이나 단어 등을 묻는 문제는 전혀 없어서 이 점도 이례적이다.⁴²⁾ 1번은 〈홍부와 놀부〉의 내용을 충

39) 박지순·김유미, 앞의 글, 2022, 109~110쪽.

40) 박지순·김유미, 위의 글, 2022, 같은 곳.

41) 참고로 [25개대 한국어의 본문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 사진과 같다.

[25개대 한국어] 기초3, 167~168쪽																					
第20课 环境问题 환경 문제 (1) 미 정: 잠깐 쉬파에 둘러 생수 한 병 사 가지고 가자. 지 영: 그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 중 알았는데 말이야. 이제는 정수된 물이 아니라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미 정: 글썽 말이야. 이러다가는 아마 공기까지도 사 마셔야 되는 날이 올 것 같아. 지 영: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 경이야. 요즘은 자동차 매연이 너무 심해서 시내에서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잖아. 밖에 나갔다가 오면 하루만 입은 옷인데도 옷깃에 온통 까맣게 때가 묻어 있고 말이야. 미 정: 그래. 맞아. 자동차 매연이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원인 것 같아.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인지 스모그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지 않나? 저지 좀 봐. 얼마 멀 어지지 않은 건물도 온통 뿌옇게 보이잖아. 지 영: 맞아. 길도 까맣고, 매연도濃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 미 정: 뉴스에서 보니까 공해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 지 영: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모두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망목면을 쓰고 다닐 날이 올 것 같아. 미 정: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 정말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	标准韩国语 第三册 (第7版) (2)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인간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수질과 대기의 오염을 비롯하여 각종 공해 문제와 그로 인한 환경 파괴가 그것이다. 실제 공해 때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오존은 산소가 분해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살균 효과와 자외선을 막는 기능을 한다. 또한 대기 속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 물질은 일종의 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 막은 지구가 태양열을 반사하는 것을 막는다.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반대로 오염 막이 두꺼워지면 결국 지구는 온실처럼 점점 더워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지구는 점차 막대한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이상 기온이나 해일 등 심각한 자연 재해를 불러온다.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이제 는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사람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회용품의 사용은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비닐이나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지구를 더욱 병들게 만들고 있다. 쓰레기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는 무유 까지 5년, 비닐봉지가 10~12년, 이쑤시개가 20년, 나무젓가락이 20년, 일회용 컵이 20년 이상, 플라스틱 용기가 50~80년이 걸린다고 한다.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 '나 하나뿐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작은 실천 해야겠다. 【새 단어】 <table border="0"> <tr> <td>고리 (호) 环节</td><td>막 (호) 盒子</td></tr> <tr> <td>~까지만 해도 (框句型) 表示 "就连……还……"</td><td>~나마 (何尾) 表示 "退一步说"</td></tr> <tr> <td>끔찍하다 (形) 惨劣</td><td>대기 오염 (호) 大气污染</td></tr> <tr> <td>~다가는 (何尾) 表示警戒</td><td>대 (호) 污, 污秽</td></tr> <tr> <td>~대 (何尾) 同化叙述式终结形同尾</td><td>매연 (호) 废气, 烟雾</td></tr> <tr> <td>~류 (호) 类</td><td>반사하다 (自, 他) 反射</td></tr> <tr> <td>멸종하다 (自) 天种</td><td>병들다 (自) 生病, 得病</td></tr> <tr> <td>망목면 (호) 防毒面具</td><td>분리수거 (호) 分类收集</td></tr> <tr> <td>본격적 (호) 正式, 真正, 正规</td><td>부엌 (호) 厨房, 灶台</td></tr> <tr> <td>비닐 (호) 塑料</td><td></td></tr> </table>	고리 (호) 环节	막 (호) 盒子	~까지만 해도 (框句型) 表示 "就连……还……"	~나마 (何尾) 表示 "退一步说"	끔찍하다 (形) 惨劣	대기 오염 (호) 大气污染	~다가는 (何尾) 表示警戒	대 (호) 污, 污秽	~대 (何尾) 同化叙述式终结形同尾	매연 (호) 废气, 烟雾	~류 (호) 类	반사하다 (自, 他) 反射	멸종하다 (自) 天种	병들다 (自) 生病, 得病	망목면 (호) 防毒面具	분리수거 (호) 分类收集	본격적 (호) 正式, 真正, 正规	부엌 (호) 厨房, 灶台	비닐 (호) 塑料	
고리 (호) 环节	막 (호) 盒子																				
~까지만 해도 (框句型) 表示 "就连……还……"	~나마 (何尾) 表示 "退一步说"																				
끔찍하다 (形) 惨劣	대기 오염 (호) 大气污染																				
~다가는 (何尾) 表示警戒	대 (호) 污, 污秽																				
~대 (何尾) 同化叙述式终结形同尾	매연 (호) 废气, 烟雾																				
~류 (호) 类	반사하다 (自, 他) 反射																				
멸종하다 (自) 天种	병들다 (自) 生病, 得病																				
망목면 (호) 防毒面具	분리수거 (호) 分类收集																				
본격적 (호) 正式, 真正, 正规	부엌 (호) 厨房, 灶台																				
비닐 (호) 塑料																					

분히 파악하였는지의 내용 이해를 물으면서도 쓰기와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이고, 2번 역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한국어로 요약해 말할 수 있는지, 3번은 중국의 설화를 한국어로 쓰고 말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25개대 한국어]의 다른 단위이나 [연변대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도 본문 내용과 무관한 어법 연습문제가 대부분이다. 문학이 본문 텍스트라고 해도 대부분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무관하게 어법 위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부전>을 수록한 [우리집 한국어]에서의 연습문제는 <홍부전>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문조차도 <홍부전>과 무관하다.⁴³⁾ 또 옛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라는 질문⁴⁴⁾ 역시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 설화를 찾거나 떠올려 한국어로 전하게 될 확률이 높다. 해당 단원의 말미에 판소리에 대한 설명문이 반 페이지 정도 있으나 <홍부전>과의 관련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별개로 있어서 한국문화나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파편적 지식의 하나가 되고 말 뿐이다. II 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역시 중국의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그 중 한국어로 중국을 잘 전하는 것에 더 초점이 놓여진 것이다.

문학작품의 내용 이해를 묻는 연습문제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에서 출판되는 한국어 교재의 지향이 문학교육, 혹은 텍스트의 내용 교육으로서의 접근이 약하고 어학적인 기능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민정(2008)⁴⁵⁾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 수업에서 민담을 활용하면 그 속에 담긴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인의 정서를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연습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은 매우 의아스럽다.

그러나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연변대 한국어]에서는 이 작품을 비롯해 다른 문학 작품

42) [25개대 한국어] 3, 제19과, <홍부와 놀부>, 165쪽, 연습 1번 문제.

1. 홍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 1) 홍부는 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 2) 놀부는 고생하는 동생을 도와 주었습니까?
- 3) 제비는 와 홍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 4) 홍부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 5) 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 6) 놀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치료해 주었습니까?
- 7) 놀부는 왜 가난해졌습니까?
- 8) 놀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홍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홍부와 놀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3. 중국의 유명한 전래 설화나 이야기를 써서 발표해 보십시오.

43) 이 특징은 해당 단위에서의 번역 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도착어를 중국어로 하는, 곧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문제는 내용이 본문 작품과 무관하다.

[우리집 한국어] 2, 제16과, <홍부와 놀부>, 170쪽, 연습 7번 문제.

7. 다음의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请把下列句子译成中文).

- 1) 이 분이 새로 오신 책임자인데요,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 2) 아버지께서는 공장에 한동안 더 계시고자 하신다.
- 3)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운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변명한다.
- 4) 열심히 해서 드디어 약속된 시간에 그 일을 마치고 말았다.
- 5)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44) [우리집 한국어] 2, 제16과, <홍부와 놀부>, 171쪽, 연습 8번 문제.

8.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십시오. (请给朋友讲故事)

45) 양민정,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학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 4, 2008, 307~331쪽.

들도 내용의 이해가 연습문제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⁴⁶⁾ 일례로 〈효녀 심청〉에서도 〈흥부와 놀부〉에서와 같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만이 아니라⁴⁷⁾ 해당 어법의 예문은 〈효녀 심청〉의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새롭게 만들어 보이고 있다.⁴⁸⁾ 또 문학 작품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데, 일례로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본문으로 한 단원에서도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때에 이를 한국어로도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⁴⁹⁾ 또 해당 단원의 말미에는 〈한국적 아름다움〉이라는 수필을 수록하여⁵⁰⁾ 본문 텍스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인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등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문화 그 자체를 학습자에게 전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작품은 [북경대 한국어]의 〈심청가〉이다. 4종의 교재 중에서 유일하게 판소리의 대목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주목되지만 해당 단원에서는 판소리라는 장르를 전혀 소개하지도 않으면서 구어체 표현이나 생경한 단어들이 등장해 어려움을 자아낸다. 앞에서 본 다른 민담들이 외형은 구어(口語)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문어체 문장으로 된 요약문이어서 학습자에게 문체면에서의 어려움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심청가〉의 본문에서는 “부처님의 도술(道術)이겠다.”나 “늬가 날더러 아버지여?”와 같이 축약이 많은 구어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또 단어 소개에서도 ‘번뜻’이라는 단어를 중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閃耀貌’라고 설명하거나, ‘끔찍’이라는 단어 소개 역시 ‘睜眼貌’로 설명하고 있어서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46) [연변대 한국어]에서는 문학 작품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문이 본문일 때에도 내용의 이해가 연습문제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47) [연변대 한국어] 기초한국어 3, 제6과 효녀 심청, 93쪽, 연습 8번 문제.

8. 본문의 내용에 따라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심청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 2) 심청이는 어째서 정승집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까?
- 3) 실족한 심봉사를 누가 구해 주었습니까? 심봉사는 스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 4) 심청이는 왜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었습니까?
- 5)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6) 심청이가 떠나간 후 심봉사는 어떻게 생활해 갔습니까?
- 7) 심청이와 심봉사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까?
- 8) 심봉사는 어째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 9) 한 중 두 나라의 효사상은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 말해 보십시오.

48) [연변대 한국어] 기초한국어 3, 제6과 〈효녀 심청〉, 85쪽 ‘~고자 하다’의 첫 예문으로 “정승집 부인은 심청이를 수양딸로 삼고자 하지만 심청이는 아버지를 생각하여 거절하였다(丞相夫人想把沈清收养为义女, 但是沈清想到父亲就拒绝了。)”와 86쪽의 ‘~에게서/한테서’의 첫 예문으로 “스님에게서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从大师那里听到了向佛祖供奉三百石大米就能重见光明的话。)”를 들고 있다.

49) [연변대 한국어] 기초한국어 2, 제7과 〈한국의 전통 가옥〉, 96쪽, 연습 9번 문제.

9.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본문의 내용에 따라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추가함).

- (1) 어째서 한국의 전통 가옥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까?
- (2)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 (3) 어째서 한국의 전통 가옥은 개방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까?
- (4) 조선 시대 상류층의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었습니까?
- (5) 안채는 어떤 공간입니까?
- (6) 사랑채는 어떤 공간입니까?
- (7) 한국 전통 가옥의 지붕은 어떻습니까?
- (8) 어째서 빗짚은 지붕의 재료로 가장 널리 쓰였습니까?

50) 위의 책, 97쪽.

또 연습문제 중에는 1번과 같이 작품 내용의 이해를 묻기도 하지만⁵¹⁾, 9번⁵²⁾과 같이 〈홍부전〉을 소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것으로서,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중국인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외국어교육과 그 지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게다가 10번⁵³⁾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문제 역시 그 내용이 한국의 고전이 아니라 중국 진나라 때의 효자 왕상의 이야기이다. 양국의 설화를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문학을 이해하는 비중 못지않게 중국의 설화를 한국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다. 게다가 이야기의 내용이 자신을 괴롭히는 계모에게까지 효심을 다하는 인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혈육인 친아버지에게 효심을 다한 심청의 이야기는 학습자에 따라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북경대 한국어]가 한국어 학습 교재이면서도 중국의 문학을 함께 수록해서 이를 한국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은 〈단군신화〉를 수록한 단원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해당 단원의 연습문제 9~11번을 보자.⁵⁴⁾

9. 把下面的短文翻译成汉语。(다음 단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⁵⁵⁾

(1) 단군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신화이다. 햇빛을 보지 않고 21일 동안 마늘과 썩

51) [북경대 한국어] 4, 제14과 〈심청가〉, 183쪽, 연습 1번 문제.

1. 根据课文内容回答下列问题(본문의 내용에 따라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추가함).

- (1) 심청은 왜 남경 상인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 (2)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 (3) 심청은 어떻게 황후가 되었습니까?
- (4)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 (5) 심청의 효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52) [북경대 한국어] 4, 제14과 〈심청가〉, 187쪽, 연습 9번 문제.

9. 把下面的短文翻译成汉语(다음 단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추가함).

- (1) 무더운 더위도, 지루한 장마도, 이제는 여름과 함께 가 버렸다. 국화꽃 향기가 풍기는 가을, 어미 제비와 새끼 제비는 홍부네 식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당을 한 바퀴 빙 돈 다음 남쪽 나라로 날아갔다. 따뜻한 봄볕에 파릇파릇 싹이 트고, 앞산에 울긋불긋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날, 홍부는 제비가 돌아온 것을 보았다. 홍부가 다리를 고쳐 준 바로 그 제비였다.
- (2) 홍부는 제비가 무엇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곧 입에 물었던 것을 홍부 앞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박씨였다. 홍부는 기뻐하면서 울타리 밑에다 정성껏 심었다. 새끼 제비들이 제법 날게 되었을 때쯤, 박은 무럭무럭 커서 지붕 위에는 보름달같이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추석이 되었다. 그러나 홍부네 집에는 맛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홍부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크고 작은 박들을 따다. 홍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다.

53) [북경대 한국어] 4, 제14과 〈심청가〉, 187쪽, 연습 10번 문제.

10. 把下面的短文翻译成韩国语(다음 단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추가함).

晋朝时有一个叫王祥的人, 早年丧母, 继母朱氏非常不喜欢他, 常在其父面前数说王祥之是非. 王祥16岁的时候, 父亲得了重病, 在临终之前, 他把王祥叫到身边, 让王祥一定要孝敬母亲, 善待弟弟. 父亲去世后, 继母对王祥百般折磨. 有一年冬天, 继母朱氏忽然欲食鲤鱼, 要王祥去买鲤鱼. 但当时天寒地冻, 哪还有人卖鱼? 王祥就自己去河功捕鱼. 但河面上冻着厚厚的(두껍다)水, 根本无法捕鱼. 为了能给继母捕到鱼, 王祥脱下衣服躺在冰上, 想用自己的身体把冰融化再捕鱼. 王祥躺在冰上, 祈求龙王帮助自己. 忽然间冰裂开了, 从裂缝处跳出两条鲤鱼, 王祥高兴极了, 赶忙拿着鱼回家送给母亲. 但是, 王祥的继母对他并不满意, 还用别的办法折磨他, 王祥一次次克服了困难, 一如既往地孝顺继母. 后来, 继母终于被王祥的孝心感动了, 开始对王祥好了起来.

54) [북경대 한국어] 3, 제6과 〈단군신화〉, 74쪽.

55) 이하의 연습문제에서 중국어 옆에 괄호로 넣은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만 먹고 여자가 된 곰과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 단군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군을 자신들의 시조로 받들고 있다. 단군 신화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찍부터 하늘을 숭상해 왔으며 광명을 숭상해 온 전통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2) 중국 사람들은 황제(黃帝)를 자신들의 시조로 알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황제의 능은 산시(陝西)성 황링(黃陵)현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모든 문명은 황제의 발명과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

10. 读一篇韩国神话, 写一篇介绍它的文章。(한국 신화 한 편을 읽고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쓰십시오.)

11. 把下面一段话翻译成韩国语。(다음 단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中国也有很多有趣的神话故事, 《开天辟地(천지개벽)》就是其中很有代表性的一篇。传说在很久很久以前, 既没有也没有地, 整个宇宙只是一团气。有一个叫盘古(반고)的人就生活在这团气里。有一天, 他用一把巨大的斧头把宇宙分成了两半, 轻的空气向上浮, 形成了天, 重的空气向下沉, 形成了地。从此宇宙有了天地之分。盘古站在地上, 手擎着天, 就这样过了一万八千年, 天变得越来越, 盘古也成了一个与天同高的巨人。后来, 盘古累死了, 他的左眼变成了太阳, 右眼变成了月亮, 头发和胡子变成了星星, 骨头变成了山, 肌肉变成了大地, 血液变成了河流。神话虽然不能被看成是事实, 但中国人喜欢这个神话, 因为它象征着人类征服自然的伟大气魄和丰富的创造力。盘古也成为中国人心中永远的英雄。

위에서 10번과 같은 문제는 외국어 학습 교재에서 목적으로 하는 언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다. 그러나 9번과 11번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9번에서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의 시조만이 아니라 중국의 시조 이야기를 나란히 두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라고 하고 있다. 11번에서도 중국의 〈천지개벽〉이라는 신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하고 있다. 비교문학 교육을 위한 교재가 아닌데도 한국어 학습 교재에서 중국의 문학작품이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학습을 통해 중국을 한국에 알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경대 한국어] 4에서는 첫 단원인 제1과 ‘이야기의 세계에서 중국의 〈반고 신화〉’를 원문 텍스트로 18개 문장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경대 한국어] 3에서 본문 텍스트로 실린 〈단군신화〉가 10개 문장인데, 거의 두 배 가까운 더 긴 분량으로 중국 신화를 공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신화〉를 수록한 교재 3종의 본문 텍스트 2개와 보조 텍스트 1개를 보면 모두 실제 일연의 『삼국유사』 원문과는 차이가 있다. 세 교재 모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는 장면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 이본 중에서도 『삼국유사』의 것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림길 한국어]에서는 원문에 없는 내용인 환웅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들을 빨리 익히게 알려 주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았다는 내용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곰이 100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는 오류도 보인다.⁵⁶⁾ 이 점은 [연변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6) 『삼국유사』에서 〈단군신화〉의 해당 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기이(紀異) 제2, ‘古朝鮮 王儉朝鮮’, “(前略)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 願化爲人. 時, 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忌三

[북경대 한국어]에서만 원문대로 21일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연변대 한국어와 [북경대 한국어]에서는 원문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한국인이 가진 자긍심, 한국인이 다른 민족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점을 <단군신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IV. 결 론

본고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고전문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4종을 대상으로 한국 고전문학의 수용 양상을 개관한 뒤에, 설화나 설화 관련 작품이 가장 많은 실린 점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에는 고급 단계가 많지 않지만, 고급 교재가 있더라도 한국 고전문학은 중급 단계에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고전문학 못지 않게 중국의 설화를 나란히 두거나, 때로는 중국의 설화를 주된 본문 텍스트로 삼기까지 하는 등 한국어 교재라고 해도 실제 교수자나 학습자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문학을 한국어로 바꾸거나 표현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간의 선행연구사는 한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가 중국의 고전문학을 한국어로 전하거나 표현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의 국어 교과서인 『語文』은 자국어 교과서임에도 현대소설의 절반 이상이 해외문학작품이다.⁵⁷⁾ 세계문학의 다양성을 공부하려는 목표도 있지만, 외국의 문학작품을 중국어로 바꾼 텍스트를 공부함으로써 중국어의 영역을 넓히는 것 또한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국민의 중등교육에서도 해외문학의 중국어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고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은 같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제기한 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 출판 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중세문학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깊었던 만큼 고전문학을 현대문학보다 더 쉽게 여기고 중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 무엇보다 한국의 고전문학이 연습문제의 내용으로까지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비한다면 중국의 고전문학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진다는 점,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중국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後略)” 전문(全文)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 참고.

https://kostma.aks.ac.kr/classic/gojunTextView.aspx?dataUCI=G002+CLA+KSM-WU.1281.0000-00000000.0006&dataId=0006_001_037_001(2023년 8월 29일 검색)

57) GU, FENHUI, 「한·중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현대소설 교육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0, 63쪽. 『어문』 교과과의 필수과정과 선택과정까지 모두 검토한 연구인데, 필수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국적을 보면 중국 작가가 12명이고, 해외 작가가 13명이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지면의 한계로 설화와 관련 작품의 수용 양상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설화나 관련 작품 외에도 속담이 적지 않게 보여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후고로 미룬다. 또한 중국 대학 내에서 자체 제작 교재를 더 많이 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의 중국어판 역시 비교 논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安炳浩 외, 『(第七版)标准韩国语』 1~3, 北京大学出版社, 2018.
- 李先汉 외, 『(修订本)韩国语』 1~2, 民族出版社, 2010.
- 李先汉 외, 『韩国语』 3~4, 民族出版社, 2004.
- 牛林杰 외, 『韩』崔博光, 『(第三版)대학 한국어 大学韩国语』 1~4, 北京大学出版社, 2014.
- 牛林杰 외, 『韩』崔博光, 『대학 한국어 大学韩国语』 5, 北京大学出版社, 2009.
- 牛林杰 외, 『韩』崔博光, 『대학 한국어 大学韩国语』 6, 北京大学出版社, 2010.
- 金永寿 외, 『(第三版)基础韩国语』 1,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3.
- 南日 외, 『(修订本)基础韩国语』 2,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
- 张英美 외, 『(修订本)基础韩国语』 3,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8.
- 沈贤淑 외, 『(第三版)基础韩国语』 4,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4.
- 马今善 외, 『高级韩国语』 1,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
- 沈贤淑 외, 『高级韩国语』 2,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1.
-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 『한국어 韩国语教程』 4~6,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07.
- 일연, 『삼국유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 강승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2003.
- 강중화,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조선대 박사논문, 2014.
- 김병운,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9.
- 김정우, 「중국의 한국어 고급 교재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 김종철,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언어교육원 공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1』, 아카넷, 2012.
- 담결,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0.
- 박지순 · 김유미,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활용 양상 분석 - 교재에 제재화된 고전 산문을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18: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2.
- 송향근 · 권혜경 · 김령 · 김양순 · 김유선 외 11명, 『(2판)예비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론』, 하우, 2019.
- 양민정,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 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 왕지원, 「한국어교재의 옛이야기 비교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11.
- 유쌍옥,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과 개발 방향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한중인문학회, 2016.
- 이숙진,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강남대 석사논문, 2008.

- 임철성, 「한국·중국·미국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비교 연구: 『연세한국어 6』, 『韩国语 4』, 『Integrated Korean - Advanced Intermediate 1』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1: 3, 2016.
- 장원기,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10.
- 조동일,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현우,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고전문학 활용 방안 -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접점’ 찾기」, 한국고전연구학회, 『고전문학과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태학사, 2017.
- 진정·서혁, 「중국인 학습자 대상 중급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 난도에 대한 한국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연구」, 『독서연구』 46, 2018.
- GU, FENHUI, 「한·중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현대소설 교육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0.
- ZHANG YINAN, 「중국 현지 출판 한국어 중급 교재 대화문의 실제성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23.
- 姜宝有, 「中国朝鲜(韩国)语教育的现状与课题」, 『东疆学刊』 1, 2022.
- 高程程, 「韩中韩国语教材文化内容比较研究」, 延边大 석사논문, 2016.
- 朴春燕, 「韩语专业学生对韩国文化认识与学习需求分析」, 『沈阳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2010.
- 苏丹·张方明, 「韩国神话对韩语教育的运用研究」, 『产业与科技论坛』 12, 2019.
- 孙淑兰, 「韩语教学中渗透文化教育的探究」, 『教育现代化』 4: 32, 2017.
- 王泽颖 외, 「国内韩语人才就业前景分析」, 『韩国语教学与研究』 1, 2018.
- 于慧踊, 「国内韩国语教材现状分析」, 『科教文汇下旬刊』 33, 2009.
- 于美灵, 「韩国语教材中的课程思政元素探究—以《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1、2为例」, 『东北亚外语研究』 3, 2022.
- 苑宪琨, 「韩国语教学中存在的文化差异分析」, 『文学教育』 4, 2017.
- 李龙海·方今淑, 「中韩文化差异与韩国语教学」, 『延边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1998.
- 李海英, 「韩国语高级教材分析研究—以文本为例」, 『中国朝鲜语文』 5, 2021.
- 田美燕, 「浅析韩语教学中的文学作品教学—以民间故事教学为主」,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7, 2013.
- 张乃禹, 「论新时代高校韩国语专业教学中的文化导入」, 『常州信息职业技术学院学报』 18: 2, 2019.
- 郑慧·黄进财, 「韩国语词汇教学中的语言文化教育」, 『东疆学刊』 2, 2021.
- 赵振坤, 「国内高校韩国文学课程教学改革探讨」, 『黑龙江教育(高教研究与评估)』 2, 2012.

* 이 논문은 2023년 8월 31일에 투고되어,
2023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cal Litera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Published in China

— Focus on the Folk Tales and Related Works —

Shi, Donghui* · Jeong, Soyeon**

This article confronts the predominant research bias with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has historically centered on teaching materials originating from South Korea. We shift our focus to investigate how classical literature is introduced in Chinese-published Korean textbooks. Unlike Korean-published materials, Chinese-published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are designed exclusively for Chinese students. And discussed how China, which played a central role in medieval literature, perceives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Chapter II,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percep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four kinds of widely-used Korea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in China. Although there are not many advanced textbooks edited and published by China itself, it can be seen that classical literature is mainly included in the intermediate textbooks. Furthermore, we observe that traditional stories and related works are most frequently included in the textbooks and delve into this in Chapter III. The results indicate that traditional Chinese narratives receive same level attention as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troduced in these materials. Some units are using traditional Chinese narratives as the main content. Given that instructors and learners are primarily Chinese, there is a notable interest in presenting Chinese literature in their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research finding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ly, as raised in the introduction, we have examined the reception of classical literature in Chinese published Korean language textbooks, which has no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so far; Secondly, we elucidate that due to the strong historical conne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medieval literary history, classical literature is emphasized as more accessible and commonly included at intermediate language learning levels comparing to modern literature; Lastly, we note that classical literature in Korea is

* Ewha Womans Univ.

** Ewha Womans Univ.

only presented in the text and is rarely covered in exercises, whereas classical literature in China holds a considerable proportion. In conclusion, as a part of China's globaliz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experiencing essential growth within China.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published in China, recep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globalization of China,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by 25 universit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by Peking Univers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by Linjie Niu,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by Yanbian University, folk tales, traditional story, Heungbu and Nolbu, Dan-gun mythology, the dutiful daughter Sim-Chung

